

WEBVTT

00:00:10.435 --> 00:00:13.193

안녕하세요?
장동준 샘입니다.

00:00:13.293 --> 00:00:16.728

이번 시간 장동준의 왕초보
만화 국어 문법,

00:00:16.828 --> 00:00:19.607

생강 국어 문법 5강이고요.

00:00:19.707 --> 00:00:23.065

이번 시간 단어에서 중요한
부분 들어가야 되겠죠.

00:00:23.165 --> 00:00:26.537

지난 번에 여러 가지
단어가 무엇이고 형태소,

00:00:26.637 --> 00:00:29.574

그다음에 이형태, 그다음에
단어의 구성 요소.

00:00:29.674 --> 00:00:31.228

이런 것들을 배웠고요.

00:00:31.328 --> 00:00:33.821

특히 마지막에 배웠던 단어의
구성 요소 있잖아요?

00:00:33.921 --> 00:00:35.726

뭐였어요? 기억나요?

00:00:35.826 --> 00:00:37.193

복습했으면 기억날 텐데.

00:00:37.293 --> 00:00:39.020

어근과 접사죠.

00:00:39.120 --> 00:00:42.193

어근과 접사라는 개념을
알고 가야 됩니다.

00:00:42.293 --> 00:00:46.492

그래야 단어 형성법을
공부할 수가 있어요.

00:00:46.592 --> 00:00:50.220

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0:50.320 --> 00:00:56.087

단어 형성법에 대한 기본 틀을
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.

00:00:56.187 --> 00:00:58.710

사실 이런 친구들도 꽤 많죠.

00:00:58.810 --> 00:01:02.277

복습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
무조건 정주행하는 친구들이

00:01:02.377 --> 00:01:03.844
분명히 존재할 거예요.

00:01:03.944 --> 00:01:05.673
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
말씀드릴게요.

00:01:05.773 --> 00:01:08.475
지금 우리가 공부할 때
정말 중요한 거는

00:01:08.575 --> 00:01:10.748
우리가 뭐를 하고
있는지를 알아야 돼요.

00:01:10.848 --> 00:01:14.059
뭐를 해야 되고 뭐를 배워야
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?

00:01:14.159 --> 00:01:17.708
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단어 형성법과

00:01:17.808 --> 00:01:20.626
단어들의 의미 관계에
대해서 볼 건데.

00:01:20.726 --> 00:01:25.752
단어 형성법이라고 한다면
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지만

00:01:25.852 --> 00:01:32.011
막상 들어가면 문제로 출제가 되면
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다.

00:01:32.111 --> 00:01:36.147
그래서 이 단어라는 거는 뭐냐.

00:01:36.247 --> 00:01:40.587
사전에 존재하는 모든
단어들을 펼쳐봤을 때

00:01:40.687 --> 00:01:45.346
그 단어들이 구성되는 양상을
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.

00:01:45.446 --> 00:01:49.200
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더라.

00:01:49.300 --> 00:01:50.393
어떻게?

00:01:50.493 --> 00:01:52.238
단일어가 있고요.

00:01:52.338 --> 00:01:55.746
그다음에 복합어가 있습니다.

00:01:55.846 --> 00:01:58.390

뭐라고요? 복잡어.

00:01:58.490 --> 00:02:03.564

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
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

00:02:03.664 --> 00:02:05.480

단일어는 뭐냐?

00:02:05.580 --> 00:02:08.288

단일어는, 지난 번에 우리가
어근 접사 배웠잖아요.

00:02:08.388 --> 00:02:10.490

그냥 1개의 어근으로
되어있는 거예요.

00:02:10.590 --> 00:02:12.172

여기서 만화를 잠깐 볼까요?

00:02:12.272 --> 00:02:18.468

어근 하나만으로 단어가 형성된
경우를 단어라고 합니다.

00:02:18.568 --> 00:02:22.029

그래서 한 개의 어근이
형성돼서 단어,

00:02:22.129 --> 00:02:25.853

그냥 어근 자체, 한 개의 어근이
그대로 단어가 된 경우다.

00:02:25.953 --> 00:02:28.083

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

00:02:28.183 --> 00:02:37.043

그래서 단일어는 오직 한 개의
어근, 이렇게 보면 돼요.

00:02:37.143 --> 00:02:39.798

영어로 한번 써볼게요, Only.

00:02:39.898 --> 00:02:48.030

오직 한 개의 어근만으로
되어있는 단어들이다.

00:02:48.130 --> 00:02:55.622

예를 들면 태양도 있고 그다음에
하늘, 나무 이런 것들이 있죠.

00:02:55.722 --> 00:02:57.155

여기 지금 써봤죠?

00:02:57.255 --> 00:02:58.561

하늘, 태양, 나무 등이 있죠.

00:02:58.661 --> 00:03:01.345

제가 자주 쓰는 예라서
만화에도 그렇게 넣어놨습니다.

00:03:01.445 --> 00:03:03.991

그다음에 복합어를 보면,

00:03:04.091 --> 00:03:06.165
우리가 어근과 접사를 배웠잖아요.

00:03:06.265 --> 00:03:07.661
그러면 두 번째 컷 보면,

00:03:07.761 --> 00:03:10.270
반면 어근에 접사가 더해지거나
어근이 두 개 결합하여

00:03:10.370 --> 00:03:12.246
형성된 단어를 복합어라고 하는데.

00:03:12.346 --> 00:03:18.127
이제는 어떤 것과 어떤 것이 합쳐져서
생겨난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.

00:03:18.227 --> 00:03:20.096
그런 거를 복합어라고 합니다.

00:03:20.196 --> 00:03:22.802
말 그대로 복합, 뭔가
합쳐졌다는 거죠.

00:03:22.902 --> 00:03:27.943
그러면 복합어는 또 어떻게
나뉘어나면 이렇게 나뉘집니다.

00:03:28.043 --> 00:03:31.930
우리가 만화에서 봤듯이

00:03:32.030 --> 00:03:35.450
합성어라고 하는 것이 있고.

00:03:35.550 --> 00:03:43.143
그다음에 파생어라는 것이 있습니다.

00:03:43.243 --> 00:03:47.534
일단 우리가 이런 용어에
익숙해져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.

00:03:47.634 --> 00:03:54.598
그래서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의
결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

00:03:54.698 --> 00:03:57.325
어근과 어근의 결합.

00:03:57.425 --> 00:03:59.418
이 기본사항을 알고 계셔야 돼요.

00:03:59.518 --> 00:04:03.579
그다음에 파생어는 어근과
접사의 결합이다.

00:04:03.679 --> 00:04:06.795
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.

00:04:06.895 --> 00:04:12.200

물론 제가 편의상 이렇게 썼지만
이 접사가 어근 앞에 붙으면 접두사.

00:04:12.300 --> 00:04:13.614
어근 뒤에 붙으면 접미사죠.

00:04:13.714 --> 00:04:20.044
그래서 이거는 어근 뒤에 붙었으니까
접미사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죠.

00:04:20.144 --> 00:04:26.119
그래서 머릿속에 이 단어 형성법,
이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

00:04:26.219 --> 00:04:27.713
아시겠죠?

00:04:27.813 --> 00:04:30.230
그러면 일단 이 전체
틀을 가지고 있고

00:04:30.330 --> 00:04:31.904
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,

00:04:32.004 --> 00:04:34.137
단일어를 물어보는
경우는 많지 않아요.

00:04:34.237 --> 00:04:35.279
너무 간단하잖아요.

00:04:35.379 --> 00:04:39.349
그래서 복합어 부분에서
시험이 많이 출제가 되고

00:04:39.449 --> 00:04:43.049
특히 합성어 부분, 파생어도
많이 출제가 되었어요.

00:04:43.149 --> 00:04:47.267
기출문제를 보면 파생어에서 접사
가지고 문제를 많이 냈었습니다.

00:04:47.367 --> 00:04:51.430
우리 교재 뒤에 기출문제 있잖아요.

00:04:51.530 --> 00:04:55.402
기출문제를 보면 접사에
대한 내용들이 꽤 많아요.

00:04:55.502 --> 00:04:58.976
그런데 요즘에는 합성어
부분이 많이 나옵니다.

00:04:59.076 --> 00:05:01.488
그래서 합성어 부분에서
많은 어려운 부분이

00:05:01.588 --> 00:05:03.762
바로 통사적 합성어와
비통사적 합성어,

00:05:03.862 --> 00:05:06.150
이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에 속해요.

00:05:06.250 --> 00:05:09.738
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
부분들을 한번 건드려볼까 해요.

00:05:09.838 --> 00:05:11.620
그래서 합성어와 파생어에 대해서

00:05:11.720 --> 00:05:15.779
좀 더 심도있는 부분을 정리를
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5:15.879 --> 00:05:17.729
출제 요소를요.

00:05:17.829 --> 00:05:21.427
그러면 우리 다음
것을 보도록 할까요?

00:05:21.527 --> 00:05:25.832
이거 정말 중요합니다.

00:05:25.932 --> 00:05:31.043
합성어의 분류인데.

00:05:31.143 --> 00:05:34.575
합성어는 단어 배열
방식과 의미 관계라는

00:05:34.675 --> 00:05:37.042
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
분류를 할 수 있다.

00:05:37.142 --> 00:05:39.768
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,
외워주셔야 돼요.

00:05:39.868 --> 00:05:43.500
그래서 단어 배열 방식과
그다음에 의미 관계.

00:05:43.600 --> 00:05:48.069
일단 첫 번째로 단어의
배열 방식부터 보면

00:05:48.169 --> 00:05:52.061
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
합성어라고 되어있는데

00:05:52.161 --> 00:05:54.535
이 단어 배열 방식이 일반적이냐.

00:05:54.635 --> 00:05:56.949
일반적이면 통사적 합성어고요.

00:05:57.049 --> 00:06:00.674
우리 친구들 이해가 잘 안
돼도 일단 들으세요.

00:06:00.774 --> 00:06:03.052

이해가 되게 해줄 거니까.

00:06:03.152 --> 00:06:06.778

단어 배열 방식이 일반적이면
통사적 합성어다.

00:06:06.878 --> 00:06:12.466

그다음에 단어 배열 방식이 일반적인
배열 방식에 어긋나게 되면

00:06:12.566 --> 00:06:16.073

비통사적 합성어다, 이렇게
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

00:06:16.173 --> 00:06:19.469

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는
친구들도 있을 거예요.

00:06:19.569 --> 00:06:21.807

아직 제가 사례를
이야기 안 했잖아요.

00:06:21.907 --> 00:06:24.647

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
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

00:06:24.747 --> 00:06:27.998

쭉 따라 가면서 정리하면
아주 편안합니다.

00:06:28.098 --> 00:06:29.662

편안하게 정리해드릴게요.

00:06:29.762 --> 00:06:31.348

여기서 중요한 거는
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

00:06:31.448 --> 00:06:33.228

우리 친구들이 지금 질문할 거예요.

00:06:33.328 --> 00:06:36.651

선생님, 일반적이라는 것이 뭘니까?

00:06:36.751 --> 00:06:39.925

어떤 문제집에서는
일반적이라는 표현이 아니고

00:06:40.025 --> 00:06:41.967

그냥 정상적인, 이런
표현을 씁니다.

00:06:42.067 --> 00:06:43.952

정상적인 배열, 비정상적인 배열.

00:06:44.052 --> 00:06:46.124

그래서 정상적인 배열은
통사적 합성어.

00:06:46.224 --> 00:06:48.899

정상적이지 않은 배열은
비통사적 합성어,

00:06:48.999 --> 00:06:50.784
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.

00:06:50.884 --> 00:06:54.557
그러면 일단 통사적 합성어가
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6:54.657 --> 00:06:58.566
어떤 것들이 일반적인 배열이나,
정상적인 배열이나는 것을

00:06:58.666 --> 00:07:00.368
우리가 봐야 되는데요.

00:07:00.468 --> 00:07:05.190
그러면 통사적 합성어부터 우리가
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7:05.290 --> 00:07:06.676
어떤 것들이 있는가.

00:07:06.776 --> 00:07:08.953
우리 교재에 아주
친절하게 다 나와 있는데

00:07:09.053 --> 00:07:11.547
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
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

00:07:11.647 --> 00:07:14.223
다시 한 번 정리를
해드리겠다는 이야기예요.

00:07:14.323 --> 00:07:18.262
72쪽부터 보세요.

00:07:18.362 --> 00:07:20.292
72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?

00:07:20.392 --> 00:07:22.781
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다?

00:07:22.881 --> 00:07:27.515
명사+명사, 이런 게
있다는 이야기예요.

00:07:27.615 --> 00:07:31.910
다시 한 번, 명사+명사.

00:07:32.010 --> 00:07:36.260
밤과 낮 나와 있죠.

00:07:36.360 --> 00:07:40.109
세 번째 컷에 보면 명사와 명사가
결합된 거는 일반적인 배열 방식이다.

00:07:40.209 --> 00:07:44.862
단어가 결합할 때 일반적으로 무리

없이 결합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.

00:07:44.962 --> 00:07:47.439
문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거다.

00:07:47.539 --> 00:07:50.844
문법적으로 자연스러운 거라고
이해해주셔도 됩니다.

00:07:50.944 --> 00:07:52.525
그래서 밤과 낮.

00:07:52.625 --> 00:07:54.286
명사와 명사가 결합해서 밤낮.

00:07:54.386 --> 00:07:57.647
이런 것들이 바로 통사적
합성어라는 이야기예요.

00:07:57.747 --> 00:08:01.858
그다음에 또 특별히 문제가
없는 배열, 어떤 거냐?

00:08:01.958 --> 00:08:05.111
바로 부사와 부사의 결합이다.

00:08:05.211 --> 00:08:09.858
부사+부사.

00:08:09.958 --> 00:08:13.516
비가 부슬부슬 내려요,
라는 문장에서

00:08:13.616 --> 00:08:19.373
부슬부슬을 보면 부슬이라는 부사와
부슬이라는 부사가 만나게 된 거거든요.

00:08:19.473 --> 00:08:24.468
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정상적인
어근 배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

00:08:24.568 --> 00:08:27.568
그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,

00:08:27.668 --> 00:08:30.262
바로 부사와 용언의 결합인데.

00:08:30.362 --> 00:08:34.483
원래 부사가 용언을 꾸며줄
수 있어요, 없어요?

00:08:34.583 --> 00:08:35.792
용언을 꾸며줄 수 있죠.

00:08:35.892 --> 00:08:39.120
그래서 용언 앞에 부사가
위치한 경우는 어떤 경우다?

00:08:39.220 --> 00:08:43.037
일반적인 배열이라고 볼
수 있는 거예요.

00:08:43.137 --> 00:08:44.947
그래서 그만두다.

00:08:45.047 --> 00:08:48.583
그만이 부사고 두다가 용언이죠.

00:08:48.683 --> 00:08:50.303
그래서 그만두다,
이렇게 연결이 되면

00:08:50.403 --> 00:08:53.494
이거는 자연스러운 배열이다,
일반적인 배열이다.

00:08:53.594 --> 00:08:55.061
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.

00:08:55.161 --> 00:08:59.155
그다음에 네 번째, 갑자기
종류가 많아지니까 복잡해지죠?

00:08:59.255 --> 00:09:01.141
그런데 아직 여기까지는
할 만할 겁니다.

00:09:01.241 --> 00:09:02.887
어려운 부분은 뒤에 있어요.

00:09:02.987 --> 00:09:04.832
제가 일부로 뒤에 배치해놨습니다.

00:09:04.932 --> 00:09:08.514
그래야 공부하는 맛이 나죠.

00:09:08.614 --> 00:09:10.522
처음부터 어려우면 힘들잖아요.

00:09:10.622 --> 00:09:13.526
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심리를
제가 다 간파하고 있으니까

00:09:13.626 --> 00:09:15.337
제가 문법 한두 번
해본 게 아니잖아요.

00:09:15.437 --> 00:09:18.136
우리 친구들이 초반에
어려운 거를 하면

00:09:18.236 --> 00:09:21.162
선생님 힘들어요, 벌써부터 머리에
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요.

00:09:21.262 --> 00:09:24.019
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 쉬운
것부터 짹 가는 거예요.

00:09:24.119 --> 00:09:28.862
네 번째는 이제 좀
어려운 말이 나오는데,

00:09:28.962 --> 00:09:34.527

용언의 관형사형, 지금부터
좀 힘들어질 겁니다.

00:09:34.627 --> 00:09:39.279

용언의 관형사형이라는
표현이 나오죠.

00:09:39.379 --> 00:09:41.615

그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요?

00:09:41.715 --> 00:09:48.627

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, 혹은
체언이라고도 하지만 주로 명사.

00:09:48.727 --> 00:09:51.759

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
하는 거는 뭐냐면

00:09:51.859 --> 00:09:55.326

용언을 관형사 형태로
바꿔준 거예요.

00:09:55.426 --> 00:09:56.887

용언에는 뭐가 있습니까?

00:09:56.987 --> 00:10:00.062

용언에는 형용사와 동사가 있죠.

00:10:00.162 --> 00:10:07.275

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
책에도 나와 있지만 작다.

00:10:07.375 --> 00:10:10.970

작다는 거는 뭐죠?
형용사예요, 동사예요?

00:10:11.070 --> 00:10:13.886

작은 상태니까 이거는 형용사입니다.

00:10:13.986 --> 00:10:16.301

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바꿔주면?

00:10:16.401 --> 00:10:18.334

관형사형으로 바꿔주면 작은.

00:10:18.434 --> 00:10:20.219

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?

00:10:20.319 --> 00:10:24.529

뒤에 뭐가 명사 같은 게 왔을 때
꾸며줄 수 있는 모양새가 되잖아요.

00:10:24.629 --> 00:10:28.032

바로 이 작은이 용언의
관형사형이에요.

00:10:28.132 --> 00:10:29.863

작다는 용언이고

00:10:29.963 --> 00:10:34.700
작은으로 바꿔줄 때 이것을 용언의
관형사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

00:10:34.800 --> 00:10:39.601
그래서 용언의 관형사형은 바로
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것이죠.

00:10:39.701 --> 00:10:43.739
그래서 이런 작은에 명사,
뒤에 집을 붙여볼까요?

00:10:43.839 --> 00:10:48.739
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연결된
거라는 이야기입니다.

00:10:48.839 --> 00:10:54.144
그래서 이런 형태도 통사적
합성어로 본다는 것입니다.

00:10:54.244 --> 00:10:59.369
그다음에 다섯 번째 내용을 볼까요?

00:10:59.469 --> 00:11:04.529
다섯 번째는 바로 용언의
연결형, 이게 좀 어렵죠.

00:11:04.629 --> 00:11:11.132
용언의 연결형.

00:11:11.232 --> 00:11:14.550
이 5번이 사실 가장
어려운 부분이고

00:11:14.650 --> 00:11:17.844
실제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
그런 부분이에요.

00:11:17.944 --> 00:11:23.777
용언의 연결형+용언이라는
부분이 있습니다.

00:11:23.877 --> 00:11:27.333
일단 써놓고 이야기를
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11:27.433 --> 00:11:30.442
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의 결합이다.

00:11:30.542 --> 00:11:31.769
이게 무슨 이야기냐?

00:11:31.869 --> 00:11:34.120
일단 이것을 이해하는
게 중요한 거예요.

00:11:34.220 --> 00:11:36.105
연결형이라는 것이 무엇이나.

00:11:36.205 --> 00:11:40.238
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연결 어미의

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

00:11:40.338 --> 00:11:44.788
그래서 돌아가다를 예로 들어볼게요.

00:11:44.888 --> 00:11:50.311
돌아가다를 보면,

00:11:50.411 --> 00:11:52.013
이 책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.

00:11:52.113 --> 00:11:54.481
돌아가다가 어떤 것과 어떤
것이 결합한 거예요?

00:11:54.581 --> 00:11:56.486
돌다와 가다가 결합한 거죠?

00:11:56.586 --> 00:11:59.560
그런데 돌다와 가다에서
어근 부분만 빼세요.

00:11:59.660 --> 00:12:03.635
실질적인 의미 부분만 쪽
빼보면 뭐가 됩니까?

00:12:03.735 --> 00:12:06.078
돌과 가가 되죠.

00:12:06.178 --> 00:12:09.899
돌다, 가다에서 핵심만
뽑아내면, 어근만 뽑아내면

00:12:09.999 --> 00:12:11.335
돌과 가가 돼요.

00:12:11.435 --> 00:12:13.662
그러면 돌과 가를
그대로 붙여버린다?

00:12:13.762 --> 00:12:15.682
어색하죠.

00:12:15.782 --> 00:12:17.054
돌가다?

00:12:17.154 --> 00:12:20.620
어간과 어간이 부딪히는
것은 비정상적인 거예요.

00:12:20.720 --> 00:12:25.358
그래서 이 돌과 가 사이에 풀
같은 거를 넣어주는 거예요.

00:12:25.458 --> 00:12:27.782
쉽게 이야기하면 부드럽게
연결될 수 있도록

00:12:27.882 --> 00:12:29.811
연결 어미를 넣어주는 거예요.

00:12:29.911 --> 00:12:33.602

바로 이 아가 연결
어미가 되겠습니다.

00:12:33.702 --> 00:12:36.700

연결 어미는 아 말고도
어도 있고요.

00:12:36.800 --> 00:12:43.228

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 용언의
연결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

00:12:43.328 --> 00:12:45.117

바로 이 부분이에요.

00:12:45.217 --> 00:12:47.541

용언의 연결형은 이 부분을
이야기하는 거예요.

00:12:47.641 --> 00:12:49.351

돌아.

00:12:49.451 --> 00:12:55.021

앞에 용언 어간에 연결 어미가
붙은 것까지가 용언의 연결형이고

00:12:55.121 --> 00:13:04.223

여기 뒤에 있는 가다가
용언에 해당되는 거예요.

00:13:04.323 --> 00:13:05.782

이해 되시죠?

00:13:05.882 --> 00:13:10.189

그래서 용언의 연결형이
네모 부분이고.

00:13:10.289 --> 00:13:16.956

용언이 분홍색 부분이라고
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죠.

00:13:17.056 --> 00:13:18.564

이해 되시죠?

00:13:18.664 --> 00:13:22.211

이런 것들이 바로 통사적 합성어라고
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.

00:13:22.311 --> 00:13:23.819

꼭 기억해두셔야 됩니다.

00:13:23.919 --> 00:13:28.245

특히 5번을 건드릴 경우 시험
문제가 아주 어려워진다는 거

00:13:28.345 --> 00:13:29.974

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

00:13:30.074 --> 00:13:36.274

그러면 통사적 합성어 봤으면 이제
일반적인 배열 방식에 어긋나는

00:13:36.374 --> 00:13:39.829

비통사적 합성어도 점검을
해줘야 되겠죠.

00:13:39.929 --> 00:13:44.669

그래서 이번에는 비통사적
합성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13:44.769 --> 00:13:55.088

그러면 비통사적 합성어에는 뭐가
있을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13:55.188 --> 00:14:01.987

이어서 73쪽에
세 가지 경우를 들었어요.

00:14:02.087 --> 00:14:05.176

첫 번째, 바로 뭐냐.

00:14:05.276 --> 00:14:09.316

방금 이야기했지만 용언의 어간과
어간이 바로 결합되는 경우입니다.

00:14:09.416 --> 00:14:14.917

어간+어간입니다.

00:14:15.017 --> 00:14:18.723

이거는 각각 예를 들어서
말씀을 드릴게요.

00:14:18.823 --> 00:14:27.027

예를 들어서 검불다 같은
경우가 되겠습니다.

00:14:27.127 --> 00:14:28.954

이런 것도 있고.

00:14:29.054 --> 00:14:34.589

뛰놀다, 이런 것들도 있어요.

00:14:34.689 --> 00:14:38.544

검다와 불다가 연결되는데
검다의 검, 불다의 불이

00:14:38.644 --> 00:14:42.082

바로 부딪히는 경우는
일반적인 배열이 아니에요.

00:14:42.182 --> 00:14:45.406

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에
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.

00:14:45.506 --> 00:14:47.200

뛰놀다도 마찬가지로요.

00:14:47.300 --> 00:14:50.266

뛰다와 놀다에서 뛰와 놀, 어간과
어간이 바로 부딪히게 되면

00:14:50.366 --> 00:14:53.349

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거는
비정상적인 관계라고 보면 돼요.

00:14:53.449 --> 00:14:56.456
물론 검불다, 뛰놀다 우리가
일상생활에서 편히 쓰니까

00:14:56.556 --> 00:14:58.660
이게 무슨 비정상적이냐고
생각할 수도 있겠지만

00:14:58.760 --> 00:15:01.791
문법적으로 봤을 때는
비정상적이예요.

00:15:01.891 --> 00:15:03.502
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.

00:15:03.602 --> 00:15:07.085
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
게 이런 거예요.

00:15:07.185 --> 00:15:09.353
통사적 합성어는 자연스러운 거.

00:15:09.453 --> 00:15:12.169
비통사적 합성어는 문법적으로 틀린
거,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

00:15:12.269 --> 00:15:14.628
그렇게 접근하면 문제를
풀 수가 없다니까요.

00:15:14.728 --> 00:15:19.385
그래서 동준 쌤이 이야기해준대로
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

00:15:19.485 --> 00:15:23.175
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.

00:15:23.275 --> 00:15:27.887
여기 지금 책에 나와 있는
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.

00:15:27.987 --> 00:15:35.137
두 번째는 바로 용언의 어간에
명사를 바로 결합시킨 경우이다.

00:15:35.237 --> 00:15:42.175
용언의 어간에 명사를
바로 결합시킨 경우.

00:15:42.275 --> 00:15:45.518
그래서 2번이 또
시험에 많이 나와요.

00:15:45.618 --> 00:15:49.844
전체적인 것 중에서 이게
조금 더 많이 나와요.

00:15:49.944 --> 00:15:53.745

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.

00:15:53.845 --> 00:15:57.649
덮밥.

00:15:57.749 --> 00:16:03.913
그다음에 접칼, 이런 것들.

00:16:04.013 --> 00:16:06.801
우리가 덮밥이라는
표현은 많이 쓰죠.

00:16:06.901 --> 00:16:09.926
식당에서도 제육덮밥, 이런
식으로 많이 쓰는데.

00:16:10.026 --> 00:16:13.864
이 덮밥이라는 것이 덮다에
덮, 용언의 어간과

00:16:13.964 --> 00:16:15.873
뒤에 명사 밥이 바로
연결된 거예요.

00:16:15.973 --> 00:16:19.325
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배열
방식이라고 볼 수 없어요.

00:16:19.425 --> 00:16:22.340
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라고
보면 됩니다.

00:16:22.440 --> 00:16:24.503
접칼도 접은 칼이죠.

00:16:24.603 --> 00:16:30.624
그런데 접다의 접이라는 어간에 칼이라는
명사가 바로 결합이 됐기 때문에

00:16:30.724 --> 00:16:33.561
비통사적 합성어라고
보면 되겠습니다.

00:16:33.661 --> 00:16:36.366
이거 2개만 예라고
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

00:16:36.466 --> 00:16:40.026
뒤에 등을 꼭 붙여줘야 되겠네요.

00:16:40.126 --> 00:16:42.164
뛰놀다 등, 접칼 등.

00:16:42.264 --> 00:16:52.336
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
부사와 명사의 결합입니다.

00:16:52.436 --> 00:16:59.180
그래서 부슬비라든지,
교재에 나와 있죠?

00:16:59.280 --> 00:17:03.617

척척바사라든지 이런 것들이
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습니다.

00:17:03.717 --> 00:17:09.087

그래서 정말 중요한 통사적 합성어와
비통사적 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.

00:17:09.187 --> 00:17:11.545

이제 다음 이야기를
해보도록 할게요.

00:17:11.645 --> 00:17:14.572

이번에는 의미 관계에
따라 분류한 건데

00:17:14.672 --> 00:17:16.427

의미 관계는 우리
친구들이 다 알 겁니다.

00:17:16.527 --> 00:17:19.945

의미 관계에 따라서
합성어를 분류를 해봐요.

00:17:20.045 --> 00:17:22.355

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.

00:17:22.455 --> 00:17:25.343

합성어의 종류.

00:17:25.443 --> 00:17:28.311

문법은 반복이 핵심이에요.

00:17:28.411 --> 00:17:29.935

왜냐하면 문법에서 쓰이는 용어들이

00:17:30.035 --> 00:17:31.884

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
것들이 아니기 때문에

00:17:31.984 --> 00:17:35.074

자꾸 제가 반복을 해줘야만 우리
친구들이 머릿속에 꽂히게 되겠죠.

00:17:35.174 --> 00:17:36.523

다 이유가 있습니다.

00:17:36.623 --> 00:17:38.456

그냥 한 번 설명하고 넘어가지
않는 이유가 있어요.

00:17:38.556 --> 00:17:40.531

이게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.

00:17:40.631 --> 00:17:43.500

그래서 합성어의 종류를
다시 한 번 체크해봅시다.

00:17:43.600 --> 00:17:45.423

어떻게 나누어진다고요?

00:17:45.523 --> 00:17:47.269

왼쪽에 나와 있으니까
그냥 보고 이야기하세요.

00:17:47.369 --> 00:17:52.812

그렇죠, 합성어는 일단
단어의 배열 방식.

00:17:52.912 --> 00:18:03.111

단어의 배열 방식에 따라서 통사적
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.

00:18:08.512 --> 00:18:09.767

이렇게 나뉘고.

00:18:09.867 --> 00:18:12.520

방금 이런 것들이 어떤
것인지를 확인을 했습니다.

00:18:12.620 --> 00:18:16.282

그다음에 우리가 볼 게 바로
의미 관계에 따른 건데.

00:18:16.382 --> 00:18:22.739

의미 관계에 따라서는
어떻게 분류하냐면

00:18:22.839 --> 00:18:25.659

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.

00:18:25.759 --> 00:18:30.362

중학교 때 했던 개념이기는 한데요.

00:18:30.462 --> 00:18:33.643

이거를 다시 한 번
보면, 의미 관계.

00:18:33.743 --> 00:18:40.290

대등 합성어.

00:18:40.390 --> 00:18:43.625

그다음에 종속 합성어.

00:18:43.725 --> 00:18:49.498

그다음에 융합 합성어가 있어요.

00:18:49.598 --> 00:18:52.672

이렇게 나뉘지게 되는 것입니다.

00:18:52.772 --> 00:18:55.983

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
보면 이해가 되는데요.

00:18:56.083 --> 00:18:58.704

거기 보면 병렬
합성어, 종속 합성어.

00:18:58.804 --> 00:19:04.556

대등이라고 하기도 하고
병렬, 같은 거예요.

00:19:04.656 --> 00:19:09.257

또는 수식이라고도 해요.

00:19:09.357 --> 00:19:12.980

대등 혹은 병렬 합성어 같은 경우는

00:19:13.080 --> 00:19:16.000

두 어근이 대등하게 연결된 거예요.

00:19:16.100 --> 00:19:17.497

그래서 손발 같은 경우.

00:19:17.597 --> 00:19:18.910

손은 손이고 발은 발이잖아요.

00:19:19.010 --> 00:19:22.133

그래서 각각의 어근과 어근이
대등하게 연결된 경우.

00:19:22.233 --> 00:19:25.629

종속이랑 수식, 종속 합성어
수식 합성어 이거는 뭐냐면,

00:19:25.729 --> 00:19:28.694

앞에 있는 어근이 뒤에 있는
어근을 꾸며주는 거예요.

00:19:28.794 --> 00:19:30.537

손수건 같은 거.

00:19:30.637 --> 00:19:32.066

손수건, 발수건.

00:19:32.166 --> 00:19:35.376

융합 합성어가 좀 특이한데
융합 합성어 같은 경우는

00:19:35.476 --> 00:19:39.192

어떤 어근과 어떤 어근이 만났는데

00:19:39.292 --> 00:19:43.562

다른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,
제3의 다른 의미가.

00:19:43.662 --> 00:19:46.280

그래서 보면 바늘방석을
예로 들었죠.

00:19:46.380 --> 00:19:48.155

바늘방석 생각해 보세요.

00:19:48.255 --> 00:19:54.005

바늘이라는 어근과 방석이라는
어근이 만났어요.

00:19:54.105 --> 00:19:55.864

그래서 의미가 어떻게 된다?

00:19:55.964 --> 00:19:58.514

진짜 방석에 바늘이 꽂혀 있는
거라고 생각하면 큰일나죠.

00:19:58.614 --> 00:20:00.228

거기 앉으면 큰일나요,
병원 가야 됩니다.

00:20:00.328 --> 00:20:01.972

119 불러야 됩니다.

00:20:02.072 --> 00:20:04.564

무슨 이야기냐면 바늘과
방석이 합쳐져서

00:20:04.664 --> 00:20:08.566

그대로 정말 이런 의미의
방석에 바늘이 꽂혀 있는

00:20:08.666 --> 00:20:11.001

이런 방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.

00:20:11.101 --> 00:20:14.057

우리 친구들 혹시
이러한 경험 있어요?

00:20:14.157 --> 00:20:18.685

친하지 않은 친척이
명절 때 왔습니다.

00:20:18.785 --> 00:20:21.257

평소에 교류가 없던
그런 친척이 왔어요.

00:20:21.357 --> 00:20:22.331

그러면 어때요?

00:20:22.431 --> 00:20:25.721

일단 인사는 하는데 같이
있기가 조금 그렇죠.

00:20:25.821 --> 00:20:29.879

조금 불편하고 안절부절 못할 때,

00:20:29.979 --> 00:20:32.844

그럴 때 바늘방석에 앉은 듯 했다.

00:20:32.944 --> 00:20:34.121

이런 표현을 쓰거든요.

00:20:34.221 --> 00:20:36.854

그래서 뭔가 불편한 자리,
뭔가 불안한 자리.

00:20:36.954 --> 00:20:39.220

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
바로 바늘방석입니다.

00:20:39.320 --> 00:20:41.895

이런 식으로 어떤 어근과
어떤 어근이 합쳐져서

00:20:41.995 --> 00:20:45.772

다른 의미가 생성되는 경우가

바로 융합 합성어다.

00:20:45.872 --> 00:20:48.343
이렇게 기억을 하면 된다는 거죠.

00:20:48.443 --> 00:20:56.171
이제 우리 단어 간의 의미
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

00:20:56.271 --> 00:20:59.628
통사적 합성어 다섯
가지 다 확인했고.

00:20:59.728 --> 00:21:01.712
비통사적 합성어도 세 개 확인했죠.

00:21:01.812 --> 00:21:05.073
이제 이거, 그림에서 만화로 볼 때

00:21:05.173 --> 00:21:08.758
1번, 2번, 3번, 4번, 5번.

00:21:08.858 --> 00:21:11.088
그다음에 비통사적 합성어
1번, 2번, 3번.

00:21:11.188 --> 00:21:12.665
이거 채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

00:21:12.765 --> 00:21:17.109
복습할 때 책에 낙서하세요.

00:21:17.209 --> 00:21:21.411
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
써넣으시란 말이에요.

00:21:21.511 --> 00:21:25.070
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방금
제가 설명을 쪽 드렸던 거니까

00:21:25.170 --> 00:21:28.896
다시 한 번 보면 그렇지,
이제야 이해가 된다.

00:21:28.996 --> 00:21:32.421
이렇게 우리 친구들이
생각할 수 있겠죠.

00:21:32.521 --> 00:21:36.474
이제 오늘 단어에서
마지막 부분이죠.

00:21:36.574 --> 00:21:38.540
단어의 의미 관계를
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21:38.640 --> 00:21:41.635
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살펴볼
게 이런 것들이에요.

00:21:41.735 --> 00:21:46.076

다의어, 동음이의어, 유의 관계,
반의 관계, 상하 관계.

00:21:46.176 --> 00:21:50.712
어떤 교재에서는 다의어라고
안 하고 다의 관계.

00:21:50.812 --> 00:21:52.576
다 관계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.

00:21:52.676 --> 00:21:54.595
다의 관계, 동음이의
관계 이런 식으로.

00:21:54.695 --> 00:21:59.926
단어의 의미도 우리가 잘
보셔야 되겠습니다.

00:22:00.026 --> 00:22:03.933
순서대로 쪽 정리해볼게요,
간단합니다.

00:22:04.033 --> 00:22:05.492
다의어부터 볼게요.

00:22:05.592 --> 00:22:08.409
다의어의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나.

00:22:08.509 --> 00:22:12.948
다의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만

00:22:13.048 --> 00:22:16.059
한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를
지니고 있는 경우예요.

00:22:16.159 --> 00:22:19.737
한 단어가 여러 개의
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.

00:22:19.837 --> 00:22:22.201
말 그대로 다 자가
많을 다 자예요.

00:22:22.301 --> 00:22:25.906
그러면 한 단어가 많은
의미는 지니고 있다면

00:22:26.006 --> 00:22:27.888
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.

00:22:27.988 --> 00:22:29.341
어떤 단어가 있어요.

00:22:29.441 --> 00:22:32.365
그러면 이게 한 단어가 하나의
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

00:22:32.465 --> 00:22:34.652
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.

00:22:34.752 --> 00:22:41.373

그러면 이 의미들이 그냥 다
똑같은 대등한 의미들이냐.

00:22:41.473 --> 00:22:43.854
그게 아니라는 거죠.

00:22:43.954 --> 00:22:48.879
다의어의 핵심 포인트는
바로 무엇이냐.

00:22:48.979 --> 00:22:55.093
중심적 의미가 있어요.

00:22:55.193 --> 00:22:57.771
딱 기본적인 의미가 하나 있어요.

00:22:57.871 --> 00:23:02.189
이 중심적 의미를 바탕으로
해서 어떻게 돼요?

00:23:02.289 --> 00:23:08.501
그거를 바탕으로 해서
주변적 의미들이 나오는 거예요.

00:23:08.601 --> 00:23:09.514
이런 식으로.

00:23:09.614 --> 00:23:13.364
중심적 의미를 바탕으로
주변적 의미로 확장되는,

00:23:13.464 --> 00:23:18.340
주변적 의미가 생겨나는
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

00:23:18.440 --> 00:23:24.042
그래서 다의어가 중심적 의미와
주변적 의미로 되어있다.

00:23:24.142 --> 00:23:26.135
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.

00:23:26.235 --> 00:23:28.158
제가 설명해봤어요, 여기에도.

00:23:28.258 --> 00:23:32.102
예를 들어서 아침이라고 하면
기본적 의미가 뭐예요?

00:23:32.202 --> 00:23:34.096
morning.

00:23:34.196 --> 00:23:40.081
예를 들어서 이 아침은
기본적 의미가 뭐예요?

00:23:40.181 --> 00:23:43.740
기본적 의미와 주변적
의미로 보겠습니다.

00:23:43.840 --> 00:23:45.751

중심적 의미.

00:23:45.851 --> 00:23:49.069

아침 같은 경우는 중심적
의미는 뭐예요?

00:23:49.169 --> 00:23:54.102

morning, 영어로
써보겠습니다.

00:23:54.202 --> 00:23:56.216

이 정도는 제가 할 줄 알아요.

00:23:56.316 --> 00:23:58.114

시간의 개념이죠.

00:23:58.214 --> 00:24:00.510

그런데 여기서 파생된
개념이 바로 뭐냐?

00:24:00.610 --> 00:24:03.197

똑같이 아침으로 쓰는데
여기서 파생된 거,

00:24:03.297 --> 00:24:06.759

주변적 의미를 하나 들어본다면
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

00:24:06.859 --> 00:24:09.643

아침밥, 이것도 영어로 써야 돼요?

00:24:09.743 --> 00:24:11.436

써보죠.

00:24:11.536 --> 00:24:14.685

이 정도는 써요.

00:24:14.785 --> 00:24:16.780

breakfast, 아침밥.

00:24:16.880 --> 00:24:19.805

아침 먹었어? 할 때 그 아침이
이 morning은 아니잖아요.

00:24:19.905 --> 00:24:21.580

아침밥의 의미로 쓰인 거지.

00:24:21.680 --> 00:24:26.533

그러니까 아침이라는
단어는 다의어예요.

00:24:26.633 --> 00:24:31.300

중심적 의미, morning이라는
아침 시간에서

00:24:31.400 --> 00:24:34.549

여기서 조금 더 확장된 의미가
뿔어져 나온 거예요.

00:24:34.649 --> 00:24:37.943

아침밥이라는 의미까지

쓸 수 있는 겁니다.

00:24:38.043 --> 00:24:41.117

그래서 아침밥 먹었어? 이게
더 정확한 표현이지만,

00:24:41.217 --> 00:24:42.642

아침 먹었어? 라고 해도

00:24:42.742 --> 00:24:45.584

그 아침이 이 morning을
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요.

00:24:45.684 --> 00:24:48.277

그래서 다의어라는 것은
바로 그런 것이다.

00:24:48.377 --> 00:24:53.473

어떤 중심적 의미에서 파생된
주변적 의미가 있는 경우.

00:24:53.573 --> 00:24:58.018

이런 경우가 바로
다의어라고 보면 됩니다.

00:24:58.118 --> 00:25:08.773

그런데 동음이의어는 말 그대로
소리는 같은데 의미가 다른 경우.

00:25:08.873 --> 00:25:13.962

소리는 같으나 의미가
다른 경우이다.

00:25:14.062 --> 00:25:16.153

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?

00:25:16.253 --> 00:25:21.282

예를 들어서 배를 한번 보면,

00:25:21.382 --> 00:25:26.299

똑같이 배라고 쓰지만 소리는 나지만

00:25:26.399 --> 00:25:30.040

사람 배일 수도 있고
타고 다니는 배일 수도 있고

00:25:30.140 --> 00:25:31.648

먹는 배일 수도 있죠.

00:25:31.748 --> 00:25:34.182

아니면 또 두 배, 세 배 할 때
그 배일 수도 있죠.

00:25:34.282 --> 00:25:37.588

그러니까 소리는 같은데
의미가 전혀 다른 경우.

00:25:37.688 --> 00:25:41.271

그런 경우를 개네들끼리는 서로
동음이의 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.

00:25:41.371 --> 00:25:46.815

그래서 아침과 아침밥 같은
경우는 관련성이 있었죠.

00:25:46.915 --> 00:25:48.453

그 다의어끼리.

00:25:48.553 --> 00:25:52.039

그래서 지금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는
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.

00:25:52.139 --> 00:25:59.310

morning의 아침과 breakfast의
아침은 의미적 연관성이 있다.

00:25:59.410 --> 00:26:00.984

여기 써놨습니다.

00:26:01.084 --> 00:26:03.971

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,
다시 정리해드리는 거예요.

00:26:04.071 --> 00:26:08.019

그래서 애네들은 지금
의미적 연관성이 있다.

00:26:08.119 --> 00:26:10.028

우리가 어떤 거로 구분할 수 있냐면

00:26:10.128 --> 00:26:24.974

다의어는 다의 관계에 있는
것들끼리 의미적 관련성이 있어요.

00:26:25.074 --> 00:26:30.762

그런데 동음이의어는 동음이의
관계에 있는 단어들끼리

00:26:30.862 --> 00:26:36.329

의미적 관련성이 없다.

00:26:36.429 --> 00:26:40.208

교재에 체크해놓으셔도 상관 없어요.

00:26:40.308 --> 00:26:41.751

이렇게 기억하면 돼요.

00:26:41.851 --> 00:26:45.838

그다음에 유의 관계를 보면,
76쪽에 나와 있습니다.

00:26:45.938 --> 00:26:47.957

거기 예를 들어놨죠.

00:26:48.057 --> 00:26:50.795

금성과 셋별, 범과 호랑이처럼

00:26:50.895 --> 00:26:56.114

둘 이상의 단어가 말소리는 다르지만
의미가 서로 비슷한 경우.

00:26:56.214 --> 00:26:58.189

그런 것들을 우리가
유의 관계라고 하니까

00:26:58.289 --> 00:27:00.458
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되고요.

00:27:00.558 --> 00:27:05.215
그다음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
반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00:27:05.315 --> 00:27:07.528
반의 관계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

00:27:07.628 --> 00:27:10.095
반의 관계 같은 경우를
보면 서로 반대되는

00:27:10.195 --> 00:27:12.037
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.

00:27:12.137 --> 00:27:13.770
이게 간단하게 설명할
수 있는 게 아니에요.

00:27:13.870 --> 00:27:18.474
둘 이상의 단어가 서로 짝을
이루어 의미가 대립하는 경우인데

00:27:18.574 --> 00:27:20.668
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?

00:27:20.768 --> 00:27:23.903
이게 종류가 세 가지로
나뉘어지지 않습니까?

00:27:24.003 --> 00:27:28.807
첫 번째가 상보 반의어.

00:27:28.907 --> 00:27:33.863
만약에 이 부분을 시험 문제에서
건드리면 대부분 틀립니다.

00:27:33.963 --> 00:27:35.251
어려우니까요.

00:27:35.351 --> 00:27:40.301
그래서 지금 한 번 배울 때
정확하게 기억을 해줘야 된다.

00:27:40.401 --> 00:27:44.362
물론 이런 내용들은 제
문법의 대표 강좌,

00:27:44.462 --> 00:27:47.842
문법탄탄대로에서도 언급을
했지만 일단 이 시간에

00:27:47.942 --> 00:27:50.059
다시 한 번 기억을 해줘야
된다는 이야기예요.

00:27:50.159 --> 00:27:53.281

상보 반의어가 있고.

00:27:53.381 --> 00:28:02.311

그다음에 등급 반의어가 있고

00:28:02.411 --> 00:28:07.565

그다음에 방향 반의어가 있다.

00:28:07.665 --> 00:28:12.524

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
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.

00:28:12.624 --> 00:28:17.501

상보 반의어는 77쪽부터
저와 같이 교재를 통해서

00:28:17.601 --> 00:28:19.712

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28:19.812 --> 00:28:21.933

상보 반의어는 반의 관계에
있는 개념적 영역을

00:28:22.033 --> 00:28:24.614

상호배타적인 두 영역으로
철저히 양분하는 단어쌍이다.

00:28:24.714 --> 00:28:27.312

한마디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,

00:28:27.412 --> 00:28:31.568

중간에 중립 지역이
없다는 이야기예요.

00:28:31.668 --> 00:28:34.913

우리 친구들이 이해가 잘 돼야
되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.

00:28:35.013 --> 00:28:36.203

결정적인 예들을.

00:28:36.303 --> 00:28:39.727

상보 반의어 같은 경우는 주로
남자, 여자를 들 수 있어요.

00:28:39.827 --> 00:28:46.497

남자와 여자는 반의
관계에 있는 말인데

00:28:46.597 --> 00:28:48.474

중립 지역이 없다는 것이
무슨 이야기입니까?

00:28:48.574 --> 00:28:50.511

남자가 아니면 여자라는 이야기예요.

00:28:50.611 --> 00:28:55.774

혹은 여자가 아니면 남자다,
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.

00:28:55.874 --> 00:29:03.789

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중립적인
게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.

00:29:03.889 --> 00:29:06.229

그런데 제가 또 이런 이야기하면

00:29:06.329 --> 00:29:08.295

우리 친구들 이런
이야기할 거죠, 분명히?

00:29:08.395 --> 00:29:09.507

저는 알고 있습니다.

00:29:09.607 --> 00:29:11.042

많이 들어봤거든요.

00:29:11.142 --> 00:29:12.471

무슨 이야기?

00:29:12.571 --> 00:29:15.458

선생님, 남자와 여자 사이에
중립 지역이 있는데요?

00:29:15.558 --> 00:29:16.771

어떤 게 있는데?

00:29:16.871 --> 00:29:17.935

양성애자요.

00:29:18.035 --> 00:29:18.973

물론 있죠.

00:29:19.073 --> 00:29:22.792

물론 존재하는데 그 양성애자까지
반영한 개념은 아니라는 거

00:29:22.892 --> 00:29:24.512

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

00:29:24.612 --> 00:29:27.551

예를 들어서 살다와 죽다도
상보 반의어거든요.

00:29:27.651 --> 00:29:28.899

중립 지역이 없어요,
없는 거로 보는데.

00:29:28.999 --> 00:29:32.851

살다와 죽다도 중립 지역이
엄밀히 따지면 있어요.

00:29:32.951 --> 00:29:34.256

우리 세상에 보면.

00:29:34.356 --> 00:29:37.462

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
아니고 식물 인간 같은 경우.

00:29:37.562 --> 00:29:40.491

그러면 식물 인간은 산 거로 봐야 됩니까?

죽은 거로 봐야 됩니까?

00:29:40.591 --> 00:29:41.679
이런 식으로.

00:29:41.779 --> 00:29:44.607
그런데 그런 개념까지는 파고
든 게 아니다, 문법은.

00:29:44.707 --> 00:29:48.007
그래서 일단 중요한
거는 이 예시를 보면서

00:29:48.107 --> 00:29:50.544
중립 지역이 있냐, 없냐를
봐주는 게 중요하다.

00:29:50.644 --> 00:29:56.730
등급 반의어는 중립 지역이
없다고 보면 됩니다.

00:29:56.830 --> 00:30:01.252
그래서 보면 등급 반의어는
정도나 등급에 있어서

00:30:01.352 --> 00:30:02.618
대립되는 단어쌍인데.

00:30:02.718 --> 00:30:04.434
여기서는 중립 지역이 존재해요.

00:30:04.534 --> 00:30:11.578
예를 들면 길다, 짧다 같은
게 가장 대표적인 예죠.

00:30:11.678 --> 00:30:14.823
보면 중립 지역이 있죠.

00:30:14.923 --> 00:30:19.375
그것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다,
이런 표현 가능하잖아요.

00:30:19.475 --> 00:30:22.724
그래서 이 중간에 어떤 정도,

00:30:22.824 --> 00:30:24.910
이 정도라는 것에 중립
지역이 있기 때문에

00:30:25.010 --> 00:30:28.943
등급 반의어는 중립 지역이
존재한다고 기억하면 되고.

00:30:29.043 --> 00:30:34.842
방향 반의어는 말 그대로 앞과
뒤, 위, 아래, 오른쪽, 왼쪽

00:30:34.942 --> 00:30:37.470
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다.

00:30:37.570 --> 00:30:39.956

그다음에 인간 관계의 대립,

00:30:40.056 --> 00:30:42.161

그다음에 이동의
측면에서 가다, 오다.

00:30:42.261 --> 00:30:46.407

이런 것도 있다고 교재에
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

00:30:46.507 --> 00:30:48.357

쭉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.

00:30:48.457 --> 00:30:53.038

가장 대표적인 거로 위, 아래죠.

00:30:53.138 --> 00:30:58.242

그래서 이렇게 반의
관계 기억하시고.

00:30:58.342 --> 00:31:01.261

그다음에 상하 관계는
어렵지 않아요.

00:31:01.361 --> 00:31:04.772

상하 관계는 상의어와 하의어예요.

00:31:04.872 --> 00:31:07.259

그러니까 한쪽이 의미상
다른 쪽을 포함하거나

00:31:07.359 --> 00:31:08.787

다른 쪽에 포함되는
의미 관계라고 해서

00:31:08.887 --> 00:31:11.474

상의어와 하의어로 되어있는 거다.

00:31:11.574 --> 00:31:22.322

예를 들면 꽃과 장미가 있으면 장미가
꽃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

00:31:22.422 --> 00:31:25.596

그래서 이게 상의어, 이게 하의어.

00:31:25.696 --> 00:31:29.771

그래서 두 단어는 상하
관계라고 이해하는 거예요.

00:31:29.871 --> 00:31:32.804

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
열심히 배웠고요.

00:31:32.904 --> 00:31:37.945

뒤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를
풀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

00:31:38.045 --> 00:31:46.486

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, 86쪽에
있는 5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.

00:31:50.285 --> 00:31:54.794
수능 평가원 기출문제 풀어보기,
5번 풀어볼 건데.

00:31:54.894 --> 00:31:57.451
실제로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.

00:31:57.551 --> 00:32:01.602
보니까 밑줄 친 말이 보기
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00:32:01.702 --> 00:32:10.515
이형태 문제가 나왔네요.

00:32:10.615 --> 00:32:15.110
이형태를 가지고 문제가 나왔어요.

00:32:15.210 --> 00:32:18.896
보니까 이형태의 개념을 이해하고

00:32:18.996 --> 00:32:22.999
이형태가 실제로 나타나는 양상을
분석할 수 있냐, 그런 문제인데.

00:32:23.099 --> 00:32:25.123
일단 정답은 몇 번이었습니까?

00:32:25.223 --> 00:32:26.494
정답은 1번이었죠.

00:32:26.594 --> 00:32:29.900
공연을 보러 우리는 광주에 왔다.

00:32:30.000 --> 00:32:37.106
광주에가 있고

00:32:37.206 --> 00:32:42.031
경주에서가 있어요.

00:32:42.131 --> 00:32:49.689
지금 밑줄이 이렇게 있어요.

00:32:49.789 --> 00:32:53.969
그런데 지금
이 두 가지가 이형태가 되려면

00:32:54.069 --> 00:32:56.989
일단 형태니까 다르니까
이형태의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

00:32:57.089 --> 00:32:58.811
의미가 같아야 되거든요.

00:32:58.911 --> 00:33:04.311
의미가 같은데 음운 조건에 따라서
형태가 달라지는 것이 이형태니까.

00:33:04.411 --> 00:33:07.420
그러니까 이형태라는 개념을
모르면 틀릴 수 있고.

00:33:07.520 --> 00:33:11.042

물론 보기에 이형태
설명이 잘 나와 있지만

00:33:11.142 --> 00:33:14.641

알고 읽는 거랑 모르고
읽는 거랑 달라요.

00:33:14.741 --> 00:33:17.006

문법이라는 것은 미리 공부할
필요가 있는 이유가

00:33:17.106 --> 00:33:21.510

아무리 보기에서 제시를
잘 해준다 하더라도

00:33:21.610 --> 00:33:25.536

이게 바로 보기의 내용으로
이형태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

00:33:25.636 --> 00:33:27.884

이거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.

00:33:27.984 --> 00:33:29.936

계속 고민하게 되니까
그만큼 시간은 흘러가고

00:33:30.036 --> 00:33:31.720

뒤에 있는 문제까지 영향을
미치게 되어있습니다.

00:33:31.820 --> 00:33:35.549

그래서 광주에 할 때

00:33:35.649 --> 00:33:41.019

이 에는 앞말에 붙어서 진행
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죠.

00:33:41.119 --> 00:33:43.720

진행 방향.

00:33:43.820 --> 00:33:48.861

그러면 진행 방향을
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인데

00:33:48.961 --> 00:33:52.378

이것도 역시 진행 방향으로서의
의미를 가지고 있어야만

00:33:52.478 --> 00:33:53.592

이형태가 된단 말이에요.

00:33:53.692 --> 00:33:56.600

그런데 예서는 뭐니까?

00:33:56.700 --> 00:34:04.642

경주에서, 이거는 앞말에 붙어서
출발점의 뜻을 갖는 거잖아요.

00:34:04.742 --> 00:34:11.108

그러니까 이미 뜻이 다르잖아요.

00:34:11.208 --> 00:34:14.375
같지가 않네요.

00:34:14.475 --> 00:34:18.010
그래서 1번이 이형태가
아닌 겁니다.

00:34:18.110 --> 00:34:19.572
그러면 나머지 거는?

00:34:19.672 --> 00:34:20.834
으로, 로.

00:34:20.934 --> 00:34:24.987
어떤 일에 수단이나 도구를
나타내는 격조사죠.

00:34:25.087 --> 00:34:28.840
그래서 앞말이 자음으로
끝날 때는 으로

00:34:28.940 --> 00:34:31.785
모음으로 끝날 때는 로로 나타내는
이형태 관계라고 보면 되고.

00:34:31.885 --> 00:34:34.335
그다음에 나, 이나.

00:34:34.435 --> 00:34:36.791
이것도 마음에 차지않는 선택
등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죠.

00:34:36.891 --> 00:34:39.147
그래서 앞말이 자음으로
끝날 때는 이나,

00:34:39.247 --> 00:34:42.689
모음으로 끝날 때는 나,
이렇게 할 수 있겠죠.

00:34:42.789 --> 00:34:45.220
면, 으면.

00:34:45.320 --> 00:34:48.415
어떤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
때 쓰는 연결 어미죠.

00:34:48.515 --> 00:34:50.303
그래서 앞말이 자음으로
끝나면 으면,

00:34:50.403 --> 00:34:52.765
모음으로 끝날 때는 면, 이거고.

00:34:52.865 --> 00:34:57.074
그다음에 5번이 조금
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.

00:34:57.174 --> 00:35:00.448
아라와 어라는 명령하는 뜻을

나타내는 종결 어미예요.

00:35:00.548 --> 00:35:05.944

그래서 어간의 끝이 아,
오일 경우에는 아라로.

00:35:06.044 --> 00:35:09.840

그 외의 모음으로
끝날 때는 어라로.

00:35:09.940 --> 00:35:13.370

이렇게 나타내는
이형태의 관계에 있다.

00:35:13.470 --> 00:35:16.061

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

00:35:16.161 --> 00:35:20.985

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
단어를 모두 마칩니다.

00:35:21.085 --> 00:35:24.122

복습 잘 해주셔야 왜요, 이 부분.
아시겠죠?

00:35:24.222 --> 00:35:26.412

여러분, 우리 마지막으로
뭐 해야 되겠습니까?

00:35:26.512 --> 00:35:27.599

퀴즈 풀어야죠.

00:35:27.699 --> 00:35:29.645

문법 화룡점정 O, X 퀴즈!

00:35:29.745 --> 00:35:32.077

두 문제를 제시해드렸습니다.

00:35:32.177 --> 00:35:34.602

지금 눈으로 빠르게 풀고 있죠?

00:35:34.702 --> 00:35:36.070

정답 바로 나오니까?

00:35:36.170 --> 00:35:39.939

강의를 충실히 잘 들었으면 당연히
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

00:35:40.039 --> 00:35:41.531

바로 어디에다?

00:35:41.631 --> 00:35:44.572

수강 후기에 정답을
올려주시기 바랍니다.

00:35:44.672 --> 00:35:47.617

그러면 동준 쌤도 칭찬
답변 달아줄 거예요.

00:35:47.717 --> 00:35:50.710

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도

고생 많았습니다.

00:35:50.810 --> 00:35:53.688
정말 중요한 부분을 배웠고요.

00:35:53.788 --> 00:35:56.180
단어 파트 배웠습니다.

00:35:56.280 --> 00:36:01.346
그러면 다음 시간에도
이어서 생강 국어 문법,

00:36:01.446 --> 00:36:05.027
장동준의 왕초보 만화 국어
문법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.

00:36:05.127 --> 00:36:09.059
그러면 마무리 멘트하고 이번
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
00:36:09.159 --> 00:36:14.339
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.